

# ‘아이 돌보미 사업’ 악순환의 연속

## 낮은 임금·그릇된 시선에 돌보미 수시로 바뀌어 혜택 못받는 가정 속출... 처우 개선 등 대책 시급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돌보주는 정부의 ‘아이 돌보미 사업’이 곁돌고 있다.

낮은 임금과 그릇된 시선 등의 이유로 돌보미들이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는 탓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채 운영되거나 돌보미 부족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5개 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올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신규 아이 돌보미 120명을 채용하는 등 해마다 100명 안팎의 아이돌보미를 새롭게 뽑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대상자가 늘었

다.는 게 신규 채용의 주된 이유라고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다르다. 돌보미로 나선 여성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기 때문이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 현장에선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체계 ▲아이 돌보미가 아닌 가사 도우미(속칭 파출부)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돌보미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본 수당이 없는 아이 돌보미는 시간당 5500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일부가 퇴직금에 적립되고 보험비로 공제된 뒤 지급된다. 돌보미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고 복지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도 노동 강도에 비해 뒤떨어지는 처우에서 비롯된다는 게 돌보미 사업 현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잦은 퇴직 등의 이유로 서비스 대상 가정에서는 수시로 아이 돌보미가 바뀌어 투입되는 탓에 돌보미와 아이, 더 나아가 신청 부모간에 신뢰관계 형성은 물론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있다.

임금뿐만 아니라 아이 돌보미들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복지 수혜자를 비롯한 사회의 ‘그릇된 시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와 맡는 돌보미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따라 필요에 의해 만난 ‘동등한 관계’인데도 마치 ‘상하관계’로 본다는 것이다. 아이를 맡기고 맡는다는 점에서 상호 신뢰관계가 필수적인데도 그릇된 인식과 태도에 신청 부모가 아이 돌보미들을 현장에서 떠나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광주에서는 매일 1000개 안팎의 가정에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10%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임금과 그릇된 시선 등의 이유로 복지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맞벌이 가구 등은 적정수준 이상의 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서민 가정에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인 만큼 정부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신청자 모두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각 구청에 신청한 뒤 소득에 따라 시간당 1250~5500원을 부담하고 ‘아이 돌보미’를 불러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세월호, 운항해선 안되는 선박 5도 이상 조타시엔 전복 위험”

### 광주지법 재판 전문가 증언

세월호가 “기본적인 운항 능력이 결여된 배로 운항에 투입되는 안되는 선박”, “전복 위험성이 커 5도 이상 크게 조타를 할 수 없는 배”라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여섯째 재판 과정에서 선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청해진해운 관계자들과 자신의 책임이 있지만 배 자체의 결함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했던 일부 선원들이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향후 재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조짐이다.

16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허용범(63) 겸·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단장은 “세월호가 1년 넘게 인천~제주를 계속 운행했다는 자체가 요령 중 요령”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현행법상 충돌 위험 등이 발생하면 선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최대 각도를 배를 돌리도록 하지만 세월호는 복원성이 불량해 5도 이상 대각도 조타시에

선체 전복 위험성이 커 큰 각도 변침이 불가한 상태’, ‘자유로운 조타가 불가능해 충돌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위험한 선박’으로 수많은 인명을 실은 대형여객선으로서 세월호는 운항에 투입되는 안되는 선박’이라는 전문가 보고서를 제시하며 허 단장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대형 선박이 35도는 커녕 5도 이상 타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승객 및 선원을 실은 고속버스가 핸들을 두바퀴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7분의 1밖에 못돌리는 것과 같다”면서 “같은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배를 몰아내서 어떻게 타느냐”고 되물었다. 배 자체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고 당시 일부 선원이 15도를 조타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조타 잘못’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사고 당시의 선회 각속도와 화물 등을 신중히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선회 각도를 비교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사고 당시 최대 35도에 버금가는 대각도 변침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폐건전지 수거**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16일 매곡동 삼익아파트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서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있다. 북구는 주민들이 폐건전지 20개를 모아오면 화장지 한 롤을 교환해 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북구청, 대형마트 입점 상고 포기할 듯

### 검찰 문의 ‘실익 없다’ 판단

광주시 북구청이 최근 패소한 운암동 대형 마트 입점과 관련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북구청 검토 의견과 동일한 취지의 ‘상고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당장, 지역 영세상인들의 경우 ‘대형 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주변 상권을 흡수하게 돼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청은 16일 남양주택산입주과 진행 중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광주고검에 문의한 결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고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얘기가.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산경찰 학교폭력 예방 시능만 했다

### 광주 5개 경찰 중 홍보비 최다 감소율 미흡... 전시성 행사 논란

광주광산경찰의 올해 학교폭력 적발 건수가 전국 경찰서 중 9위를 차지했다. 광산경찰의 경우 지난해 광주 5개 경찰서 중 학교폭력 홍보 물품·전단지 등에 쓴 경비가 가장 많은데도, 학교 폭력 감소율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전시성’ 행사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내놓은 ‘학교폭력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광산경찰의 학교폭력 적발 건수는 올 7월까지 84건으로, 광주 5개 경찰서의 적발 건수(162건)의 절반(51.85%)을 넘어선다. 적발 건수뿐만 아니라 250여건의 경찰서 중 9번째로 높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학교폭력 적발 건수를 감안하면 광산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개 경찰서별 학교폭력 적발 건수는 ▲2012년 913

건(광산서 165건·18%) ▲2013년 465건(189건·40.6%) ▲2014년 7월 162건(84건·51.9%) 등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북부경찰만 보더라도 지난 2012년 223건이던 학교 폭력이 지난해 117건으로 대폭 줄었고 올 7월까지 19건에 머물렀지만 광산경찰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광산경찰청은 지난해 ‘4대 사회악(賭·근절)·홍보 일환으로 1732만4000원의 예산을 책정, 5월까지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품·전단지 명목으로 611만5000원을 사용한 바 있다. 광산경찰이 ‘전시성’ 행사와 겹쳐 실적에만 치우쳐 예방 대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단지까지 새로 조성되면서 학생 수도 늘어났고 타 지역에서 넘어 와 어린학생들 간 마찰이 잦은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싶다”면서 “신고는 창구를 다양하게 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스페이스첼린지’ 지역 예산 27일 공군 제1전비서 개최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지역들의 촉제인 ‘제 36회 공군첨초총장배 스페이스첼린지 2014’ 광주·전남 예선대회가 오는 27일 공군 제1전비행단에서 열린다. 대회는 지난 1979년부터 시작돼 국내

항공기 마니아가 총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과학축제다. 고무동력기·글라이더·물로켓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입상자들은 10월 11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희망자는 24일까지 대회 홈페이지(www.airforce.mil.kr/SCH)에 등록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건물

-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무등 장례식장 사이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 주전직업 운영시 1,100만 현재영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사우나 남·녀 직원구원(청소 및 키우터)★
- 나주 삼영동 영장초교 앞2층 상가건물**  
대지 205평 / 총 100평(전용 70평)주택 2층 80평(전용 70평) 6칸  
매가 2억5천 월 보충금 2천 월 200만원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유달 경기장5분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옆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회과 나무 식재된 월 보충금 2천 월 110만원 매가 3억1
-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매가 10억
- 커피숍 급매매(중심상 중심도로 1층) 1층임대 약 80평 보 3천 300 상점후 시비절정 시설완비 최고위치 성형외과 의사 및 커피전문점**
-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8층 오피스텔 매가 35억(월세 3000만 수익)**

(주)대신 062)527-7600

###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리/시/실	
·광주 북구 양산동 (토지774㎡, 건1031㎡) / 감평가 1,612,900,800 / 최자가 1,612,900,800 (신축1회투자적합)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780.2㎡, 건1992.57㎡) / 감평가 2,470,120,980 / 최자가 1,729,085,000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오지동 (토지378.9㎡, 건659.25㎡) / 감평가 504,733,800 / 최자가 353,314,000 (유할3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1094㎡, 건4489.1㎡) / 감평가 4,124,890,300 / 최자가 1,847,950,000 (유할7회투자적합)
근/리/주/택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138.8㎡, 건202.77㎡) / 감평가240,099,610 / 최자가 168,070,000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본촌동 (토지36.67㎡, 건72.74㎡) / 감평가 39,321,290 / 최자가 17,616,000 (유할3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임동 (토지126㎡, 건178.61㎡) / 감평가 164,495,540 / 최자가 115,147,000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1315㎡, 건335.82㎡) / 감평가 502,511,640 / 최자가 351,758,000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유동 (토지229.7㎡, 건608.69㎡) / 감평가1983,295,060 / 최자가 214,646,000 (유할2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양림동 (토지69㎡, 건72.74㎡) / 감평가 39,321,290 / 최자가 17,616,000 (유할3회투자적합)
숙/박/시/실	
·광주 서구 경원동 (토지235㎡, 건2980.38㎡) / 감평가 780,300,460 / 최자가 546,210,000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양동 (토지176.9㎡, 건481.16㎡) / 감평가 274,555,800 / 최자가 192,189,000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광산구 병암동 (토지1182.4㎡, 건2289.6㎡) / 감평가 3,248,468,500 / 최자가 1,819,142,000 (유할2회)투자적합	
오피/시/텔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18,398㎡, 건30.8㎡) / 감평가 42,000,000 / 최자가 29,400,000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92.27㎡, 건59.04㎡) / 감평가 85,000,000 / 최자가 59,500,000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42,826㎡, 건190.66㎡) / 감평가 350,000,000 / 최자가 100,352,000 (유할5회)투자적합	
다/가/구(원룸등)	
·광주 북구 누문동 (토지1271.1㎡, 건566.7㎡) / 감평가 506,308,700 / 최자가 354,416,000(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광산구 신항동 (토지1256㎡, 건300.3㎡) / 감평가 1,543,888,500 / 최자가 1,080,708,000(유할1회)투자적합
대지	
·광주 광산구 소촌동 (토지1956㎡) / 감평가 2,073,360,000 / 최자가 1,451,352,000 (유할1회)투자적합	·광주 북구 삼익동 (토지1137㎡) / 감평가 351,333,000 / 최자가 245,933,000 (유할1회)투자적합

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개설  
경매가득까지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공, 설계, 부동산관련 전례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구함 남·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주)대신 010-6670-9800

###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프프 매장 및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1층상가 2칸,룸17개 4층 고급주택1개 옥탑 1개

엘레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전망좋은 매가 12억 → 10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성황리 임대완료**

010-6670-9800

###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 북구 우산동 사우나 건물 7층 (대96, 건564) 수익 900 매11억
- 광산구 오룡동 8층 건물(대500천, 건 700) 1층 상가 120평 룸 58개 월수익 3000 매가 35억
- 수원지구 상가 1층 (19평)대방 5차 A 후문 매가 3억5천(보2천 월 140)
-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술빌딩(4층중 3층) 85평 신안동 후미로이엘가(상가)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 하남 공단 쪽)매가 2억5천(보2천 월 150 용9천)
-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스나) (8층중 2층) 62평(부영APT)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 나주시 삼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2억5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 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대340, 전 50 주택 2채 매가 3억1천)

### 오피스텔 매매·임대

-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은원역 1번 출구 2번(월수리 전세고체)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 삼우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연)한국은행 앞 삼우지구 현대 APT) 30평 매가 1억3천(용 6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9800만 (촉사주주가는 시비없음)
- 삼우지구 수림오피스텔 매매(6층) ①19평(수림)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7천8백(임대 보500, 월40) ②13평(수림6층) 임대보충금 3백-33만원 매매가 5천만원

### 신축원룸 매매

- 신축원룸 4층 북구 용봉지구 룸 21개 월수익 800(1층상가 2, 4층 주인주택) 매가 11억8천
- 신축원룸 4층 북구 중흥동(전대정문 2분) 룸 12(1층 정문1칸, 4층 주택) 월수익 500 매가 6억7천

부동산 직원구함(남·녀 실장) 여성 급여제 가능

신한 010-6832-9700